

# 출장보고서

## I. 출장개요

1. 출장자: 채욱 원장
2. 출장기간: 2009. 11.25~11.28
3. 출장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4. 출장목적: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유라시아포럼, 우즈베크거시경제예측연구소(IFMR), KIEP가 공동주최한 “한-중앙아 협력세미나” 참석및 개회사

## II. 출장일정

| 일자 | 행선지 | 활동사항 | 비고 |
|----|-----|------|----|
|    |     |      |    |

## III. 활동 내용

출장보고서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

## “한-중앙아 협력 세미나 개최”

출장기간: 2009. 11. 26 - 11. 29

출 장 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출 장 자: 채욱 원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 출장개요

1. 출장자: 채욱 원장
2. 출장기간: 2009. 11.26~11.29
3. 출장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4. 출장목적: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KIEP), 한국유라시아포럼, 우즈베크 거시경제예측연구소

(IFMR)가 공동 주최한 “한-중앙아 협력 세미나” 참석 및 개회사

## II. 활동 내용

### 1. 개요

■ 제목: 2009 KIEP, Korea-Eurasia Forum and IFMR Joint Seminar  
"Global Financial crisis, new order and the future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central Asia"

■ 일시 : 2009년 11월 26일(목) 09:30-19:00

■ 장소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IFMR 국제회의장

■ 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유라시아포럼,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IFMR)

#### ■ 행사 목적

-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및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원과 MOU를 체결한 중앙아시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및 실질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2. 세미나 주요 내용

■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상황과 각국의 위기 극복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또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방안 및 에너지 수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함.

- 제1회의: 경제 위기 극복과 신세계 질서 형성의 방향
- 제2회의: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증진 방안
- 제3회의: 에너지 자원 협력 증진 방안

### 1. 제1회의 : Overcom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ew Direction of the World

(1)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Financial maintenance of industrially-innovative development within the limits of anti-recessionary measures of Kazakhstan)

: Uzan Iskakov 카자흐스탄 경제대학 박사

-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국가 핵심 발전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왔음.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Delta$ GDP 3.5%이상 증가,  $\Delta$ 경제성장률 8.4% 실현,  $\Delta$ 노동생산성 3배 증가,  $\Delta$ 에너지 소비 2배 감소 등임.
- 카자흐스탄은 단기간에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국내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그러나  $\Delta$ 지역간 불균형,  $\Delta$ 자원 이외 분야 생산 감소,  $\Delta$ 인프라 미비,  $\Delta$ 기술 부족 등이 경제 발전의 큰 장애 요소가 되었음. 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 혁신 발전

정책을 내놓고 법·제도 개선, 투자 유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총 60조 텡게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셔널 투자 펀드를 조성하였음.
- 그러나 본 프로그램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금융분야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총 부채중 50%이상이 상업은행의 외채였으며, 증권시장 또한 실질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분적으로조차 충족할 수 없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룩-카즈나' 국가기금으로 상하이 협력기구(SCO)로부터 연 3% 조건으로 4억 달러 규모의 특혜 대출과 중국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30억 달러의 대출을 유치하여 국가 재정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임.

## (2) 우즈베키스탄의 세계금융위기 극복과 향후 경제발전 전망

(Overcoming crisis in Uzbekistan and new perspectives)

: Shukhrat Ismailov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박사

- 우즈베키스탄은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도 시장 경제 이행을 위한 다단계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2년간 8~9%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투자부문은 11~25%까지 증가하여 산업국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주요 산업은 기계 분야로, 특히 자동차·비행기 부문에서 11%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2008년에 6.4%를 기록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요인으로는 △정치적 안정, △지리적 이점, △인프라 개발, △풍부한 광물자원, △고급 인력을 들 수 있음. 또한 World Bank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외채가 GDP 7% 미만이며, 금융 시스템이 국가적 차원의 보호막을 갖고 있어 글로벌

별 금융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기 타개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최소화'를 기본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기업 지원, △산업 기술 현대화, △내부 비용 간소화 등이 있음. 장기적으로는 은행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중임.

### (3) Korea's Resilient Economy Amidst the Global Crisis

: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한국의 실물경제는 다른 수출 주도형 국가들 보다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CDS 프리미엄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9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의 단기부채도 최근 급감하고 있는 상태임.
-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어본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따라서 이번 2008년 위기시에도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였음. 둘째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지출과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들 수 있음. 또한, GDP 대비 국가부채가 35.6%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상태였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임.
- 개방과 경쟁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도 FTA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녹색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토론

### (1) 김석환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원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음. 새로운 질서의 방향은 안보와 번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안보 측면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며, 번영 측면에서는 미국적 헤게모니, 기축 달러화를 바탕으로 세계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를 의미하고 있음.
- 새로운 질서는 1) 기존 강대국의 순위변화, 2) 새로운 국가에 의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출현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지금까지의 세계는 정치 및 안보 측면에서는 강대국의 순위와 관계변화를, 경제 및 번영 측면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철학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중앙아시아는 현재 소련 이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민족 개념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역화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경제와 디지털화의 변화를 겪고 있음. 중앙아시아가 이에 잘 적응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음. 앞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해 올 것이므로,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함.
- 중앙아시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는 '역내 통합'이 있음. EU의 확대가 시사하는 것처럼 중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공동 산업 정책과 공동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아시아를 보는 외부 시각과 중앙아시아 내부의 욕망이 일치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둘이 같을 때 새로운 질서에서 중앙아시아가 공존하고(안보), 발전할 수(번영) 있음.
- G-20라는 신질서 하에서 세계는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문화, 사람, 역사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한국은 아주 가난한 국가에

서 현재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역사와 국민, 교육, 문화가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앙아시아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임.

(2) Sergei Chepel 우즈베키스탄 IFMR 박사

-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의 정도, 극복 전략,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금융위기는 지속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위기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융통성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 CIS 국가중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5% 경제 성장 하락이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 모델, 즉, 기술 현대화와 수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거시경제예측과 방법론을 추가하여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2. 제2회의 : Increasing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1) Current Situation and Task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 중앙아시아는 1)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하여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2)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3)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기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중앙아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함. 최근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건설 부동산, 자원개발, 리스 등에 투자하고 있음.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해 한국이 늦게 진출하였지만 공동개발탐사 협력이 시작되었음.
- 뿐만 아니라 IT 분야, 물류, 금융 분야로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교육, 행정 등의 분야의 ODA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잠재력에 비하면 현재 양국간 협력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음. 카자흐스탄의 GDP 규모가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크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1) 객관적으로 카자흐스탄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 장애가 많고 거래비용이 높고, 3) 최근까지 한국내 카자흐스탄에 대한 협력 전략이 없었음. 4)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5) 카자흐스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분야를 한국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즉, 한국은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카자흐스탄은 산업다각화, 중소기업 육성, 개발경험 전수 등을 필요로 했음.
- 앞으로 중·장기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1) 카자흐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 2)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협력 채널 구축, 3) 에너지 협력과 한국 경제발전 경험 전수, 4) 문화 교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협력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2) 우즈베키스탄 산업다각화 정책 및 국제 협력 전략

(Uzbek policies on industry diversification and a strategy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 Galina Fedyasheva 우즈베키스탄 IFMR 박사

-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산업 다각화와 기술 혁신 정책으로 볼 수 있음. 국가차원의 기존 산업 및 신규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CIS 국가 중 경제성장 3위를 달성하였으며, 연간 8~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수출 주도의 가장 핵심적 발전 분야는 연료와 기계 산업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공업 분야임.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수출은 28.7% 증가하였음.
- 중앙통제 시스템하에서 민간 투자가 증가하여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9개월간 370여 개의 새로운 기업체들이 투자하였음. 식품분야에 130개, 건설 및 건축자재산업에 122개의 기업이 있음. 2008년 외국인 투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17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스송유관 건설이 올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나보이 광산금속 공장의 현대화 작업, 비료공장 건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음.
- ADB가 현재 14개의 프로젝트에 관해서 5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해 주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내 진출해 있는 World Bank와 유럽개발은행, 상하이 협력 기구 등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 독일은행은 지금까지 9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9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중국과 이란의 은행도 진출해 있음.
- 나보이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30년간 매력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하여 국제 허브로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항공과 한국가스공사가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합의하였으며, 한국과 우즈베크간 합작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협력 가능성 또한 증가 할 것으로

로 기대하고 있음.

(3) 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 한국의 대키르기즈 투자 전망과 문제점

(The prospect and problems for Korean investments in Kyrgyzstan)

: Jumakadyr Akeneev 키르기즈스탄 한국투자펀드 회장

- 키르기즈스탄은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매우 작은 국가임. 전체 산업 중 46%가 농업이고, 26%가 제조업, 나머지가 서비스업 등으로 전통적인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음. 한국과의 무역은 5천 달러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키르기즈스탄내 한국 식당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투자재단을 설립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과 키르기즈는 에너지, 농업, 통신, 관광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됨. 특히 한국투자펀드는 양국간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300개 이상의 제안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된 상태임.
- 키르기즈는 WTO에 가입한 유일한 중앙아시아 국가로 한국과 교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됨. 한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정부산하 투자개발청 등이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토지, 재산권, 보증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타지키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Potentials of Tajikistan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발표자: Nuriddin Kayumov 타지키스탄 경제연구소 박사

대리발표: Avaz Alimov 우즈베키스탄 동방학 대학교 박사

-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자원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많이 없지만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한국이 타지키스탄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점이라고 보고 있음.
-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교역은 단순 수입에 불과하여 타지키스탄이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냉장고 등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수입물량 또한 4천 1백만 달러에 불과함.
- 한국의 대타지키스탄 직접투자액도 9천 3백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경제 개발, 협력 관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타지키스탄은 한국이 투자할만한 광산지가 270개 있으며 금속, 비금속, 금, 은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함. 또한 무공해 농산물과 담배, 화장품 등의 재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물량 증가를 위한 교통망 건설도 진행되고 있는데 두산베에서 우즈베키스탄 국경까지,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연결되고 있음.
- 투자 유망업종으로는 기계, 제조, 전자, 비철금속, 실크, 관광 산업으로, 국내 자본 및 자원 이용 권한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법규와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중임.

## ■ 토론

### (1) 서창우 한국유라시아 포럼 이사장

- 발표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투자가 왜

이렇게 힘든가'이며,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한국은 왜 중앙아시아에 투자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것은 서로간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함.

- 투자가 활성화 되고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함. 간격을 좁혀 줄 수 있는 매개체로 조직이나 단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한국유라시아 포럼에서는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학교간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8년에 우즈베키스탄 동방학 대학교와 한신대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한국학생이 4명씩 교환학생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있음. 이러한 교류를 점차 확대시켜 양국간 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이해를 높여 신뢰를 형성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음.

## (2) 박병환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공사

-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발전 단계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생략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한국이 20~30년 만에 선진 경제를 이룬 것은 단계를 빨리 이룬 것이지 생략한 것은 아니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충분히 발전해 있으나 외국인의 입장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투자 유치시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기준을 다른 나라와의 기준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나보이 경제특구는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의미이지 인도네시아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나은 것이 없음.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편하게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3) 이길주 배재대학교 교수

- 이재영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음. 한국의 입장에서 협력 전략으로 카자흐스탄에 집중해야함을 강조했는데,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에도 함께 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됨.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동의하나, 학술교류나 대학 차원의 교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 타지키스탄 Kayumov 박사님의 발표 논문과 관련해서 중앙아시아 각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의 강대국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함. 나아가 문화, 스포츠 등의 협력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4) Jakhongir Muinov 우즈베키스탄 IFMR 팀장

- 우즈베키스탄 산업 다각화의 목적은 기존 고정자산, 산업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산업과 제품을 만드는데 있음. 완제품 생산까지의 생산현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년전 한국의 KDI와 개발, 경제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 때 쌓은 경험이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답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 한국은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한정된 자원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모두 협력하기 힘든 상황임. 카자흐스탄이 전략적 협력의 중심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3. 제3회의 : Increasing the Collaboration on Energy Resources

(1) Korean diplomacy for resources to Central Asia and the prospect  
: 백준기 한신대학교 교수

- 자원에너지 협력외교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1) 한- 투르크메니스탄

2008년 8월 8일 이명박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 카스피해 해상광구 공동탐사 및 자원협력과 산업 다각화, 항만 및 정유공장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확대를 희망하였음.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동년 11월 16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국빈방한, 제2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에 입각한 실질 경제협력에 합의하였음.

2) 한-우즈베키스탄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하였음. 공동성명의 어젠다 1순위에 광산 및 에너지 자원 분야, 건설, 자동차, IT, 섬유,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명시함.

3) 한-카자흐스탄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양국간 공동성명이 발

표되어 양국간 다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에 합의함.

- 총리 회담에서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함께 자원에너지 분야와 SOC건설 및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은 한국의 자원에너지 외교 전략에 비추어보아 1)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협력과 자원개발을 접목하고, 2) 부문별 협력 교환이라는 수평적 협력 확대, 3) 중앙아 에너지 평화지대 수립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2)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을 위한 물류 및 교통망 개발

(Development of logistics and traffic network for developing resources in Uzbekistan)

: Vladlen Kim 우즈베키스탄 IFMR 박사

- 우즈베키스탄 교통 물류 운송망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함. 2007년 물류 증가율은 17%로 이후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일반도로의 길이는 18만 km정도이며, 각국을 잇는 도로는 490km임. 고속도로를 550km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열차와 항공 운송 노선도 점차 증대시킬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의 물류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현재 운송 기업이 140개, 창고 서비스업 31개, 컨테이너 36개 기업이 있음. 품질과 가격면에서 운송시장이 호황기라고 여겨져 우즈베키스탄의 물류 분야 급성장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있음.
- 특히 나보이 경제 특구는 물류의 중심 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신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음. 2010년부터 50여개의 프로젝트가 나보이에서 실행될 계획이며 안전한 화물운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 이란, 북방을 잇는 철도망·도로 등의 거점이 되어 '국제적 통로'라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국제 연결망이 나보이를 통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 토론

### (1) 이양구 주카자흐스탄 한국 총영사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방안으로는 6가지가 있음. △교통, △에너지, △환경, △산업현대화, △농업, △IT가 그것임.
-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이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1) 역사적 공감대 형성, 2)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위치, 3) 비슷한 전통과 가치관, 고려인 등을 이유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은 앞으로 60년간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으며, 골드만삭스의 2050년 전망에 의하면 한국은 독일, 영국, 일본을 능가하는 GDP 수준을 갖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임.
- 이와 같은 국제 신질서 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공통적으로 middle power 국가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2) 김도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개발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 50년전 한국은 천연자원 없이 경제개발을 시작했으며,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었음.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있음.

-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로 확보임. 한국이 지난 2차례 이라크 참전 이유는 미국이 1만 km가 넘는 교통로를 지켜주기 때문임.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적인 확보 없이는 개발이 무의미함.
- 현재 동북아는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중앙아시아도 역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됨. 이 두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미국, 러시아, 중국)의 이해 관계는 비슷함. 이들과 역내국가가 형성할 질서가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관계 형성도 가능하리라 생각됨.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3) Khasan Nishanbaev 우즈베키스탄 IFMR 연구원

- 우즈베키스탄은 교통망에 대해 이란,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이란과의 합의를 통해 즉시 출하- 운송이 가능해져 운송 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였음.
-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은 아시아 국가에서 육지 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육지 운송 루트중 하나가 바로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길로, 우즈베키스탄 전역을 통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운송 교통망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 3. 향후 협력 방안 논의 사항

가. 일시 및 장소: 2009년 11월 27일 10시, 그랜드 미르(Grand Mir)

## 호텔 커피숍

나. 면담자: Jumakadir Akeeneev 키르기즈스탄 한-키르기즈 투자기  
금 회장(전 키르기즈스탄 농업부 장관)

## 다. 주요 내용

□ 아키네예프 회장은 제1차 한-중앙아 협력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  
무리되었다는 평가함.

- 특히 한국 KIEP의 주도로 중앙아시아의 현지에서 중앙아시아 저명  
학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며, 이에 대해 높이 평  
가함.

□ 향후 한-중앙아 협력 세미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제2차 회의를  
키르기즈스탄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 아키네예프 회장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2차 한-중앙아 협력 세미나를 2009년 9월 키르기즈스  
탄 수도 비쉬켅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음.

- 특히 제2차 세미나에서는 수준을 보다 격상하여, 키르기즈스탄 총  
리의 참석과 더불어 참여 범위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시아 5개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약속함.

- 또한 제2차 협력 세미나에서는 키르기즈 측에서도 장소,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함.

- 끝 -